

2026학년도 미술랑 모의고사 ★★★-4회

# 국어 영역

홀수형

## 정답 및 해설

수능맛집국어연구소



## 정답 및 해설

## 공통

1	③	2	④	3	⑤	4	④	5	④
6	③	7	④	8	③	9	③	10	④
11	②	12	①	13	②	14	②	15	①
16	③	17	②	18	②	19	⑤	20	①
21	②	22	①	23	⑤	24	④	25	④
26	①	27	①	28	③	29	⑤	30	⑤
31	①	32	④	33	⑤	34	①		

## 화법과 작문

35	②	36	①	37	⑤	38	①	39	⑤
40	②	41	③	42	②	43	⑤	44	①
45	③								

## 언어와 매체

35	⑤	36	③	37	②	38	⑤	39	②
40	②	41	③	42	④	43	⑤	44	②
45	②								

## 공통

## 1. ③

2문단에서는 '단순히 줄거리 요약에만 그치면 내용 파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깊이 있는 감상이나 비판적 사고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③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① 1문단에서 '기록이라는 행위는 뇌의 활동을 자극하여 내용을 더 오래 기억하게 돋고'라고 서술하고 있다.  
 ② 1문단에서 '읽은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정교화할 수 있게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④ 2문단에서 '읽은 내용을 자신의 기존 경험이나 다른 텍스트와 연결 지어 의미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⑤ 3문단에서 '독서 목적에 따라 기록의 내용과 방식을 달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 2. ④

윗글은 효과적인 독서 기록 방법으로 2문단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을 옮겨 적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거나',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글 쓴이의 주장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활동'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④는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가장 적절하다.

- ① 2문단에서 줄거리 요약만으로는 깊이 있는 감상이나 비판적 사고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② 4문단에서 '형식에 얹매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진솔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③ 자신의 감상을 기록하는 것은 좋지만, 윗글은 질문하기, 연결 짓기 등 더 구체적인 방법을 강조한다.  
 ⑤ 윗글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 질문 등을 중심으로 기록할 것을 강조하며, 타인의 서평을 참고하라는 내용은 없다.

## 3. ⑤

윗글에서는 깊이 있는 이해나 비판적 사고를 위해 필요한 것은 기록의 형식이 아니라, 내용, 즉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보는 활동',

'자신의 경험이나 다른 텍스트와 연결 짓는 활동', '논거의 타당성을 평가하거나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는 활동' 등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독서 기록장 작성이 또 다른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형식에 얹매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진솔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므로, 학생의 기록은 이러한 내용적 측면을 보완해야 하는 것이지, 형식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① 학생은 주인공의 성격 변화라는 독서 목적에 맞춰 각 부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이는 시간 순서에 따른 인물의 변화 양상, 즉 텍스트의 서사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활동이다.

② 학생은 인상 깊은 구절을 단순히 옮겨 적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구절이 '도시 생활의 비정함'을 보여준다고 자신의 언어로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이는 텍스트와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구성하려는 능동적인 독서 활동의 일부로 볼 수 있다.

③ 2문단과 3문단에서는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활동'이나 '자신의 기존 경험이나 다른 텍스트와 연결 지어 의미를 확장하는 것'을 효과적인 기록 방식으로 제시한다. 학생의 기록에는 이러한 활동이 빠져 있어, 주인공의 변화를 더 깊이 이해하거나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는 '의미 확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④ 4문단에서는 독서 기록장이 '형식에 얹매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진솔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학생이 주인공에 대해 '너무 불쌍하다'고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은, 정해진 틀을 넘어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자유롭게 담아낸 활동으로 볼 수 있다.

## 4. ④

(나)의 4문단에서는 「공직선거법 제 250조」에 대해 설명하며, 이러한 규정이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④는 (나)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진술이다.

①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알고리즘 기반 추천 시스템은 이용자의 성향과 '유사한' 콘텐츠를 반복 노출시켜 확증 편향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다.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제공하여 영향력을 줄인다는 설명은 이와 반대된다.

② (가)의 3문단은 허위 정보 유통을 단지 개인 표현의 문제로만 보기 어려우며, 타인의 권리나 공익을 해칠 때는 책임이 따르고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의 영역'으로 이어진다고 서술한다. 따라서 법적 규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나)의 3문단은 공익 목적 사안에서 허위 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기도 한다'고 하여 가능성을 열어둘 뿐, '항상'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⑤ (나)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유권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형사 처벌에 반대하는 입장의 논거이다. 형사 처벌 찬성론자들은 오히려 허위 정보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키므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찬성론자들의 입장으로 잘못 연결한 설명이다.

## 5. ④

(가)의 2문단은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감정적으로 자극적인 정보일 수록 공유되는 빈도가 높으며, 이 과정에서 사실 검증은 뒤로 밀리

고 자극적이고 긍정적인 정보가 우선되기 쉽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사실 여부보다 감정적 자극을 우선하는 미디어 환경적 특성이 허위 정보의 확산을 용이하게 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④는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가장 적절한 이해이다.

① (가)는 허위 정보가 '사회 전반에 파급력'을 가지며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킨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파급력이 미미하다는 설명은 글의 내용과 명백히 어긋났다.

② (가)의 2문단은 이용자가 정보의 출처보다 호소력에 주목하는 성향이 허위 정보 확산의 한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허위 정보의 발생 원인으로 단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는 허위 정보가 타인의 권리나 공익을 해칠 때는 책임이 따르며 '법적 규제의 영역'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율 규제에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은 지문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

⑤ (나)에 따르면 허위 정보가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 그 행위가 공익을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 목적이 인정된 허위 정보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며, 불법성도 없기에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 6. ③

③은 선거에 큰 영향이 없는 허위 정보 소문을 유포하는 경우, ⑦(민사상 명예훼손 책임)과 ⑩(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의 4문단에 따르면, ⑦과 같은 형사 처벌은 성립 요건이 엄격하여 '단순한 소문 수준의 사적 발언'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⑦ 민사상 명예훼손 책임은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경제적 이익이 실제로 침해'되었는지를 따지므로, 선거에 큰 영향이 없는 소문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⑦과 ⑩ 모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단정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⑦은 개인의 '사회적 평가'(명예) 보호를, ⑩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핵심 목적으로 하므로, 보호하고자 하는 핵심 법익에 차이가 있다고 추론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나)의 4문단은 ⑦과 같은 형사 처벌의 성립 요건이 민사(⑦)보다 '엄격하게' 따져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형사 처벌이라는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④ ⑦에 대해서는 (나)의 3문단에서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한다는 점이 언급되었고, ⑩에 대해서는 (나)의 5문단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적 견해가 소개되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책임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⑤ ⑦은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한 '실제 침해' 결과에, ⑩은 선거 공정성을 해칠 '위험 발생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책임을 묻는다고 보는 것은 적절한 추론이다.

#### 7. ④

(나)의 3문단에 따르면, ⑦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허위 정보 유포가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해당 사안이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고 '공익을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을 때 고려될 수 있다. ④는 특정 정치인의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소문 유포로, 정치인 자체는 공적 인물이지만 그의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 소문은 '공적 관심사'나 '공익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⑦에 해당하여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① 기업의 환경 오염 문제는 공익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이며, 환경 단체의 주장은 '공익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비록 수치가 정확하지 않았더라도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

② 유력 정치인의 뇌물 수수 의혹은 대표적인 '공적 관심사'이며, 언론 보도는 감시라는 '공익 목적'을 가졌다. 비록 의혹 자체가 사실이었더라도 일부 증언을 과장한 부분에 허위성이 있었다면, 전체 맥락상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

③ 신제품의 안전성 문제는 소비자의 권리와 관련된 '공적 관심사'이며, 소비자의 경고는 추가 피해를 막으려는 '공익 목적'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위험성이 과장되었더라도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

⑤ 회사의 비윤리적 관행 폭로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며, 내부 고발은 '공익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수치 착오가 있었더라도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

#### 8. ③

③은 ⑧(표현의 자유 중시 견해)가 [사례 2]에서 정이 허위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소문을 전달했기 때문에, 허위성을 인식한 경우와는 달리 형사 처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나)의 5문단에 따르면, ⑧은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 행위자의 허위성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이라는 수단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므로 민사상 책임(손해배상)이나 다른 대응(공개 반박, 정정보도)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⑧가 행위자의 허위성 인식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에 대한 입장을 달리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⑧의 근본적인 주장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① [사례 1]은 선거와 관련 없는 개인 간 명예훼손 사안이다. ⑧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므로, 비록 을의 행위가 부적절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 등 구체적 피해가 크지 않다면 형사 처벌보다는 민사상 책임으로 해결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② ⑨(형사 처벌 필요 견해)는 허위 정보가 사회 질서나 공익을 훼손하는 경우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례 1]에서 을이 허위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갑을 비방한 것은 (가)에서 언급된 것처럼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⑨의 관점에서 일정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④ ⑨는 선거의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해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특히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는 허위 정보의 빠른 확산 속도 때문에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피해 복구가 어렵다고 본다. [사례 2]에서 무 측이 허위 소문을 조직적으로 유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는 이러한 ⑨의 주장에 따라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⑤ ⑧와 ⑨는 형사 처벌 적용 여부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지만, (나)의 1문단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문제 된 정보가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경제적 이익이 실제로 침해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으므로, 허위성 인식 여부에서 차이를 보이는 병과 무의 법적 책임의 무게는 둘 모두 다르다고 볼 것이다.

## 9. ③

본문의 ③ 따진다는 형사 처벌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살펴서 확인한다는 의미이다. 즉, 어떤 기준이나 조건에 맞는지 자세히 검토하고 판단하는 것을 뜻한다. ③의 따져는 사건의 진상을 알기 위해 관련 증언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본문의 문 맥적 의미와 가장 가깝다.

- ① '따져'는 이익과 손해를 계산한다는 의미이다.
- ② '따져'는 이유를 캐묻는다는 의미이다.
- ④ '따지곤'은 옳고 그름을 가리며 다투다는 의미이다.
- ⑤ '따져'는 여러 조건을 비교하여 더 좋은 것을 고른다는 의미이다.

## [10-13] 26 수특 과학기술 '지능형 에이전트' 연계

## 10. ④

2문단에 따르면, 현대 챗봇이 인공신경망 기반의 딥러닝 모델을 사용한다는 사실과 그 작동 방식을 설명하지만, 해당 모델이 처음 개발된 역사적 배경이나 최초의 목적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윗글만으로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

- ① 3문단에서 챗봇이 '입력 해석, 정보 검색, 문장 생성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답을 찾을 수 있다.
- ② 2문단에서 '초기의 단순한 규칙 기반 챗봇'과 '현대의 챗봇은 인공신경망 기반의 딥러닝 모델을 통해' 작동한다고 설명하며 차이를 보여주므로 답을 찾을 수 있다.
- ③ 4문단에서 데이터 부족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학습과 데이터 증강 기술이 활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답을 찾을 수 있다.
- ⑤ 5문단에서 질 낮은 데이터는 '노이즈나 편향이 포함'되어 '오답을 학습시킬 위험이 있다'고 설명하며 응답의 신뢰도와 정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므로 답을 찾을 수 있다.

## 11. ②

4문단에 따르면 '새로운 학습 예시를 만들어내는' 기술은 '데이터 증강'이다. 사전학습은 '대규모 일반 언어 데이터를 바탕으로 언어 구조 전반을 학습'하는 과정이지, 학습 예시를 제작하는 기능은 아니다. 따라서 ②는 데이터 증강의 기능을 사전학습의 기능으로 잘못 연결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추론이다.

- ① 1문단은 지능형 에이전트를 '스스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 최적의 행동을 선택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2문단은 초기 챗봇이 '미리 설정된 문장만을 출력'했다고 설명한다. 이를 통해 초기 챗봇은 스스로 정보를 처리하는 자율성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③ 5문단에서 파인튜닝은 '목적에 맞는 고품질 데이터'를 중심으로 '특정 분야의 응답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해당 분야에 특화된 학습이므로, 학습하지 않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도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추론할 수 있다.

- ④ 6문단에서 멀티모달 처리는 '텍스트뿐 아니라 다양한 입력 정보'를 활용한다고 설명한다. 텍스트 외에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함께 처리하려면 더 복잡한 모델 구조와 많은 연산량이 필요할 것이므로, 연산 과정이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⑤ 6문단에 따르면 연산 자원이 부족하면 '응답 품질이 떨어진다'. 효율적 아키텍처 설계는 이러한 연산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접근 방식이므로, 결과적으로 응답 품질 저하를 막거나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 12. ①

[A]는 챗봇이 사용자의 발화를 분석하고 '그 의도에 부합하는 답변을 생성한다'고 설명하며, 날씨 질문 예시에서는 챗봇이 입력을 "날씨 정보 요청"으로 분류한 뒤 외부 데이터를 참조한다고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분류)해야 그에 맞는 정보 검색 및 답변 생성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①은 [A]의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이해한 진술이다.

② [A]는 날씨 정보 요청 시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는 예를 보여줄 뿐, 질문 유형에 따라 참조 여부를 '결정한다'고는 설명하지 않는다.

③ [A]는 '입력 해석, 정보 검색, 문장 생성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시에 진행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날씨 질문 예시에서도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이 언어적 지식을 이용해 '문장 형태로 재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즉, 문장 형태(구조)는 미리 학습된 언어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지,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A]는 챗봇이 '대화의 일관성을 유지한다'고만 언급할 뿐, 동일한 문장 구조를 사용한다는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는다. 일관성 유지는 문맥에 맞는 답변 생성을 의미한다.

## 13. ②

챗봇은 '테니스 엘보'라는 용어가 조선 시대 기록에 없다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자의 의도(팔꿈치 통증 기록 유무)를 추론하여 관련된 일반 지식(세종대왕 건강)을 바탕으로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학습된 지식과 추론 능력을 활용하는 챗봇의 특징을 보여준다.

① 왕들의 평균 수명과 같은 일반적인 역사 지식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사전학습'을 통해 얻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특정 분야의 고품질 데이터로 정확도를 높이는 '파인튜닝'과는 거리가 멀 수 있으며, 이 답변의 신뢰도는 별개로 검증이 필요하다.

③ '답변을 하지 못하는 문제'(<보기>의 최신 영화 정보 등)는 주로 학습 데이터의 부족 또는 최신성 부재(데이터 양의 문제) 때문이다. '검색 기반 보강'은 외부 지식 참조로 응답 적합도를 높이는 기술이며, '데이터의 질'을 직접 향상시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휴먼-인-더-루프'는 데이터의 질을 개선하는 기술이지 '연산 효율성'과는 관련이 없다. 문제점과 해결책의 연결이 모두 부적절하다.

④ 챗봇이 최신 영화 정보를 모르는 것은 학습 데이터가 특정 시점 까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 증강'은 기존 데이터를 변형하여 학습 예시를 늘리는 기술이지, 존재하지 않는 최신 정보를 생성하여 추가하는 기술이 아니다.

⑤ 프로그래머 자질 답변 시 나타난 편향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사회적 편견, 즉 '데이터의 질' 문제이다. 이는 데이터의 '양'이 과도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편향 완화'는 데이터의 질을 높이는 적절한 해결책이지만, 그 원인 진단이 잘못되었다.

## [14-17] 26 수특 인문예술 '인격 동일성' 연계

## 14. ②

3문단에서 로크는 인격 동일성의 핵심 근거를 '기억의 연속성'에 두었

으며, '의식이 과거의 생각과 행동을 기억하는 한, 그 인격은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체의 변화는 '부차적 문제'로 보았다. 이를 통해 추론해 보면, 로크는 기억이라는 의식의 연속성이 끊어진다면, 설령 신체가 동일하게 유지되더라도 이전과 동일한 인격으로 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②는 로크의 관점을 가장 적절하게 추론한 내용이다.

① 스트로슨은 인격 동일성이 '특정한 신체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인식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사회적 조건 안에서 유지'된다고 보았다. 사회적 위상이나 위치는 이러한 사회적 맥락과 인식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인격 동일성 판단과 무관하다고 보는 것은 스트로슨의 입장과 거리가 멀다.

③ 3문단에서 스트로슨은 로크의 입장을 비판하며 '기억은 언제나 오류나 왜곡의 가능성을 지니며... 그 자체로 동일성을 보장하지 못 한다'고 명시적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기억의 연속성만'으로 인격 동일성을 판단하는 것에 스트로슨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억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인격 동일성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스트로슨의 입장과 거리가 멀다.

④ 스트로슨은 인격을 '행위와 사고(의식)가 결합된 구체적 실존'으로 보았으며, 인격 동일성을 '심리적 연속성이나 물리적 동일성 중 어느 한쪽으로 환원할 수 없는 복합적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의식의 연속성(심리적 연속성) 역시 인격 동일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고려 대상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스트로슨은 '물리적 동일성' 역시 인격 동일성 판단의 한 요소로 보았으나, 로크는 신체적 조건을 '부차적 문제'로 보았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신체적 조건의 동일함을 동일한 인격의 근거로 보았을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15. ①

⑦은 기억의 두 가지 한계점, 즉 오류 가능성과 검증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기억만으로는 인격 동일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스트로슨의 비판을 담고 있다. ①은 이러한 ⑦의 핵심 의미를 '내면적 기억이 이어진다는 사실만으로는 동일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말로 가장 적절하다.

② 스트로슨은 기억이 동일성의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의 표지'는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억을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⑦의 의미와 거리가 멀다.

③ 스트로슨은 인격 동일성을 신체, 행위, 사회적 인식 등이 결합된 복합적 개념으로 보았다. 기억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했지만, 그것이 동일성을 확립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④ 스트로슨은 인격 동일성이 물리적 동일성(신체)만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억의 문제와 무관하게 신체만으로 동일성이 결정된다는 설명은 ⑦의 맥락 및 스트로슨의 입장과 어긋난다. ⑤ ⑦은 기억의 오류 가능성을 지적하며 타인과의 관계 속 검증을 강조한다. 따라서 주관적인 자아 인식만 지속되면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은 ⑦의 의미와 상반된다.

### 16. ③

<보기>에 따르면 윌리엄스는 심리적 연속성(기억)만으로는 인격 동일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를 '우리의 자아 정체성이 특정한 신체와의 연속성에 깊이 의존'하며, '신체적 연속성이 단절되는 상황은 우리의 직관적인 자기 인식과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윌리엄스의 비판 근거는 기억 자체의 신뢰성 문제보다는 신체와 분리된 기억만으

로는 '나'의 생존이라는 실존적이고 직관적인 자기 인식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윗글에서 기억의 '오류나 왜곡 가능성'을 로크 비판의 근거로 삼은 것은 스트로슨이었다. 따라서 ③은 윌리엄스가 로크를 비판하는 이유를 스트로슨의 논거와 혼동하여 잘못 설명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보기>에 따르면 윌리엄스는 '바로 이 몸'이 계속 존재한다는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기억과 의식은 그대로지만 몸이 바뀐다면, 신체적 연속성이 단절되었으므로 원래의 인격은 생존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이는 기억의 연속성만 중시한 로크와는 다른 관점이다.

② 윌리엄스는 '신체와의 연속성'을 강조하였고, 스트로슨 역시 인격을 '행위와 사고가 결합된 구체적 실존'으로 보며 신체를 인격 동일성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였다(비록 환원되지는 않지만). 따라서 두 사람 모두 신체가 단순한 심리 상태의 운반체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④ 윗글에서 스트로슨은 인격 동일성이 '타인과의 상호작용', '타인으로부터 인식받는 관계의 구조' 속에서 성립한다고 강조하였다. 반면 <보기>의 윌리엄스는 주로 신체적 연속성이라는 개인적이고 내재적인 조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스트로슨이 윌리엄스와 달리 사회적 관계를 강조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윗글에서 로크는 신체의 변화를 '부차적 문제'로 보고 오직 '기억의 연속성'을 인격 동일성의 핵심으로 보았다. 이는 신체를 중요하게 본 윌리엄스나, 신체와 사회적 관계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스트로슨과는 다른 관점이다.

### 17. ②

본문의 ②유지된다는 '어떤 상태나 상황이 그대로 이어져 나간다'는 의미이다. 문맥상으로는, 한 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조건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②의 지속된다 역시 '어떤 상태나 현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는 의미이므로,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깝다.

① '보존된다'는 주로 가치 있는 것을 잘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즉, 보호의 의미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③ '형성된다'는 이전에는 없던 것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의미이다.

④ '강화된다'는 기존의 상태보다 더 강해진다는 의미이다.

⑤ '변화된다'는 다른 상태나 모습으로 바뀐다는 의미로, '유지된다'와 상반된다.

### 18. ②

[B]는 서술자가 인물 간의 대화 내용('아저씨 웬일이시냐고' 등)과 윤첨지의 생각 및 발언 과정을 외부적 관점에서 요약하고 전달하는 부분이다.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 인물의 내면에 초점을 맞춰 그의 시각으로 상황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볼 수 없다.

① [A]는 윤첨지의 등장 장면으로, 서술자는 '외가편으로 아저씨뻘', '황등장터에서 제 논석지기나 지니고 탁신히 사는 농민' 등 그의 신분과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하며 새로운 인물을 소개하고 있다.

③ [C]는 한덕문이 논을 판 후 세웠던 계획('아홉 마지기를 삼으로 써...')과 그 결과('완전히 허사가 되고 말았다')를 시간 경과에 따라 압축하여 요약적으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그의 기대와 실제 현실이 달랐음을 대비시키고 있다.

④ [D]는 [C]에서 한덕문의 계획이 실패한 이유(다른 사람들이 더

비싼 값에 팔기 때문)를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주관적 시각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상황으로 설명하고 있다.

⑤ [E]는 '이런 소문이 들렸다'와 같이 정보를 인식하는 주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독자가 해당 정보를 접했을 때 서술자의 시선과 인물의 시선이 겹쳐 나타나는 효과를 준다.

### 19. ⑤

구장은 한 생원이 길천이에게 '돈을 받구 파셨'다는 과거의 매매 행위라는 법적 사실을 근거로, 현재 논의 소유권자(임자)는 길천이이지 한 생원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지적하며 한 생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① ⑦은 윤첨지가 길천이가 '값을 시세보담 갑질씩이나 내구 논을 산다'는 정보를 듣고 내뱉는 말이다. 이는 단순히 철로로 인한 피해를 피하려는 소극적 동기뿐 아니라, 높은 가격에 팔아 이익을 얻으려는 적극적인 계산이 작용한 결과이므로, 피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결정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⑨은 한덕문이 철로 부설 자체가 아니라, '차가 땅에 땅이 울려' 농사를 망친다는 윤첨지의 설명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문을 표하는 것이다. 철로 부설 사실 자체를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③ ⑩은 한덕문이 윤첨지의 설명을 듣고 철로 계획이 '아주 적실한가요?'라고 묻는 부분은 논을 팔아 이득을 얻기 위해 소문의 진위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려는 것이다. 한덕문은 논을 비싸게 팔아 많은 돈을 벌 생각이었기 때문에 논을 비싸게 팔 수 있게 된 이유인 철로 설치 계획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④ ⑪은 한 생원의 질문에 대해 구장이 '나라에서 그랬을 테죠'라고 추측하여 답하는 부분이다. 이는 새로운 통치 주체인 '나라'의 등장을 보여줄 뿐, 구장이 한 생원의 분노에 공감하거나 국가 정책을 비판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 20. ①

지문의 [B] 부분에는 '이 동네 사는 길천이라는 일인이 값을 후회 내고 땅을 사들인다는 소문이 있으니 적실하냐고 아까 한덕문이 전주집더러 묻던 말을, 윤첨지가 한덕문더러 물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윤첨지가 한덕문에게 한 질문 내용(길천에 대한 소문)과, 그 질문이 한덕문이 전주집에게 했던 질문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모두 직접적으로 보여주므로, 가장 적절한 설명이다.

② 윤첨지(⑨)는 철로 소문과 길천의 높은 매입가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논을 팔기로 결정하고, 한덕문(⑩)은 노름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논을 팔기로 결심한다. 이처럼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과 동기가 다르지만, 논을 팔기로 결정한 것은 둘 다 주체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주체성 측면에서 다르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한덕문(⑩)은 자신의 논이 길천에게 넘어갔다가 이제 국가 소유가 된다는 사실에 분개하여 구장(⑪)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하지만 구장이 상황의 시급성을 근거로 한덕문을 설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구장(⑪)은 길천(⑨)과 같은 일본인의 재산이 이제 '우리 조선나라 재산'이 된다는 새로운 국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를 자신이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⑤ 구장(⑪)은 한덕문(⑩)과 길천(⑨) 사이의 과거 논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가 아니다. 구장은 해방 후 새롭게 등장한 국가 권력을 대변하는 인물로서, 적산 처리라는 공적인 문제 때문에 한덕문과 대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장을 과거 거래의 '이해

관계 당사자'라고 설명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 21. ②

한덕문은 논을 팔 때는 철로 소문과 일인 길천이가 시세보다 갑절을 준다는 현재의 (불확실한) 정보에 기대어 높은 가격을 받으려 했다. 그의 계획이 실패한 것은, 이후 논을 다시 살 때 다른 사람들이 이미 길천이에게 비싼 값(스무 냥)에 팔고 있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과거처럼 싼 값(열 냥)에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잘못 기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실패 원인을 '과거의 관념을 기준으로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한, 적절하지 않은 감상이다.

① 한덕문은 근거가 부족한 '철로' 소문을 듣고 자신의 재산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성급하게 팔 결심을 한다. 이는 불확실한 정보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모습이며, 합리적 판단보다는 소문에 휘둘린다는 점에서 <보기>의 '시대착오적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③ 한덕문은 논을 판 돈(아흔 냥)으로 더 많은 논을 사려 했으나, 변화된 시장 상황 때문에 실패하고 결국 돈마저 모두 잃게 된다. 이는 <보기>에서 설명하듯, 변화된 '사회 현실'을 외면한 채 '개인적인 목표'(사적 이익)만을 추구했던 그의 계획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되었음을 보여준다.

④ 한덕문은 자신이 돈을 받고 판 논이라도 원래 임자였던 자신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해방 후 적산 처리 문제에 대한 '새로운 법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과거의 소유 관념'에 기반한 '사적 이해관계'에만 집착하는 모습으로, <보기>의 설명에 정확히 부합한다.

⑤ 한덕문은 자신의 논을 되찾지 못하게 되자 국가 자체를 부정하며 독립을 반기는 만세조차 부르지 않은 것이 잘한 일이었다고 말한다. 이는 '개인적 피해 회복'이라는 '사적 이해관계'가 좌절되자, '새로운 국가 공동체'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으로, <보기>에서 설명한 인물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 [22-25] 26 수완 고전시가 '산중잡곡' 연계

#### 22. ①

(가)는 '늙는 줄을 모르리라', '일러 무엇하리오', '이 몸이 또 어떠하뇨' 등 질문의 형식을 빌려 답이 정해진 내용을 강조하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연 속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다. (나) 역시 '영육을 어이 알며', '출척을 어이 알까', '어조나 날 대하랴', '걸린 것이 무엇이랴', '종로한들 어이하리' 등 설의적 표현을 반복하여 세속적 가치에 대한 무관심과 달관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①은 두 작품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하다.

② (가)에서는 <제8수>에 사계절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나)의 제시된 부분에서는 특정 계절이나 계절의 순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에서는 <제15수>에 '상산 늙은 할아버지'의 고사를 인용했지만, (나)의 제시된 부분에서는 특정 인물의 고사를 인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구체화하지 않았다.

④ (가)와 (나) 모두 자연 풍경을 주로 시각적 심상을 통해 묘사하고 있으며, 청각적 심상이 두드러지거나 시각적 심상과 대비를 이루며 입체적으로 풍경을 묘사하는 부분은 찾기 어렵다.

⑤ (가)와 (나) 모두 자연물을 제재로 삼고 있으나, 화자의 정서를 특정 자연물에 직접 투영하여 일치시키는 표현(감정 이입)은 나타나

지 않는다.

23. ⑤

화자는 '상산 늙은 할아버지가 채지가를 부르'었던 행위를 언급하며, 자신 또한 '늙어 부르노라'라고 말한다. 나아가 '옛 사람 즐기던 맛을 이내 마음이 알리로다'라고 하여, 과거 인물의 풍류를 현재 자신이 동일하게 느끼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① <제1수>에서 화자는 새로 만든 연못('반무당')에 비친 산 그림자('산영')를 보고 있으며, 연못을 만든 '뜻'이 그것을 보기 위함이라고 밝힌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것 이므로, 이를 현재의 결핍을 전제로 하는 '의지'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② <제3수>에서 화자는 '늙는 줄을 모르리라'라고 하여, 시간의 흐름을 잊을 만큼 자연 속 한가로운 삶에 만족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시간의 흐름을 안타까워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③ <제8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의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제시하며 예찬하고 있다. 이는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에 대한 감탄이지, 변치 않는 속성을 예찬하는 것이 아니다.

④ <제14수>는 현재 자신이 머무는 공간이 바로 이상향인 무릉도원과 같다고 여기며 만족하는 내용('이 진짓 거기로다 / 이 몸이 또 어떠하뇨 무릉인인가 하노라')이다. 이상향을 찾아 떠나려는 소망과는 거리가 멀다.

24. ④

④에서 화자는 아득한 속세를 '눈 속에 티끌'로 치부한다. 이는 속세의 모든 가치와 일들을 아주 하찮고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로, 세속적 가치의 고통스러움을 부각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① ⑦에서 화자는 공명부귀를 구할 '재주가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능력을 낮추어 평가한다. 이는 세속적 성공을 이루지 못한 자신의 현실적 처지를 받아들이고 합리화하려는 태도로 볼 수 있다.

② ⑤에서는 자연에 습관이 있어 화자가 자연으로 귀의했다고 말한다. 이는 화자가 자연에 대한 오랜 애착을 바탕으로 자신이 자연에 돌아올 수 밖에 없음을 드러낸 표현으로 귀의 과정에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③ ④은 소나무 뿌리를 베고 늙는 소박한 행위를 묘사한다. 이는 인위적인 잡자리가 아닌 자연물에 그대로 기대어 쉬는 모습으로, 격식 없이 편안하고 한가로운 화자의 상태를 보여준다.

⑤ ④은 달밤 강 위에서의 풍류를 즐기고 그 흥취('만강풍류')를 배에 가득 싣고 온다고 표현한다. 이는 화자가 자연(강)과 완전히 하나 되어 느낀 충만한 만족감과 일체감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25. ④

'심승을 언제 할고'는 화자가 한가롭게 담소를 나누다 보니 산 속의 하루가 저물어 감을 표현하는 부분 ('한담을 못다 그쳐 산일이 빛겨시니 / 심승을 언제 할고 채약이 저물거다')에 나온다. 이어서 화자는 스님을 찾거나 약초를 캐는 것조차 '번거로워 떨치고 걸어 오른다'고 말한다. 이는 화자가 이미 자연 속에서 한적함을 누리고 있으며,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고뇌에서 벗어나려 하기보다는 현재의 여유로운 상태 자체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구절을 현실적 고뇌에서 벗어나려는 '소망'의 표현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에서 화자가 '반무당 새로 여'는 행위는 <보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연 속 공간을 '능동적으로 가꾸'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② (가)에서 화자가 자신이 사는 공간을 무릉도원에 빗대어 스스로를 '무릉인'이라 여기는 것은, 현재 공간에 자신의 이상을 투영하여 '긍정적 흥취와 만족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③ (나)에서 화자가 벼슬길의 오르내림을 의미하는 '출척'을 어찌 알겠냐고 반문하는 것은 <보기>에서 설명하듯 '세속적 가치로부터의 거리 두기'를 강조하는 태도이다.

⑤ (가)의 화자가 자연 속에서 '옛 사람 즐기던 맛'을 안다고 하는 것이나, (나)의 화자가 자연 속에서 '늙어간들 어이하리'라며 생을 마치겠다고 하는 것은 모두 현재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26-29] 26 수특 고전소설 '청백운' 연계

26. ①

[A]에서 추운사로 변장한 호 소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대화를 이끌어간다. 그녀는 두쌍성의 질문('저의 장모와는 몇 촌이나 되십니까?')을 이용하여 역으로 질문('귀인의 집이 어디입니까?')함으로써 두쌍성이 스스로 처가(위주 호 어사 댁)에 대한 정보를 말하게 유도한다. 이 발언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어머니(진 부인)와 동생의 안부를 물음으로써, 본래 의도(가족 안부 확인)를 드러내지 않고 원하는 정보를 얻고 있다.

② 대화에서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두 인물이 '진씨'라는 공통점을 잠시 확인하지만, 이는 호 소저가 정체를 숨기기 위해 이용하는 것일 뿐 공감이나 정서적 유대감 형성 과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두쌍성은 호기심에 질문하고 있으며, 호 소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데 집중할 뿐 상대방을 추궁하여 진실을 밝히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

⑤ 대화는 주로 인물과 가문에 대한 사실 정보를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비유나 상징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27. ①

윗글에서 '제사'는 나교란과 여섬요가 호 소저를 포함하는 결정적인 수단으로 활용된다. 첨들이 제물에 머리카락을 넣는 행위는 두쌍성으로 하여금 호 소저가 죽은 어머니에게까지 불경한 짓을 저질렀다고 믿게 만든다. 이로 인해 두쌍성은 극도로 분노하여 ('모골이 송연하였다',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젓가락을 집어 던지고') 호 소저에 대한 불신을 확신하게 된다. 이는 두 인물 간의 갈등을 최고조로 심화시키며, 이후 호 소저를 축출하는 두쌍성의 결정적 행동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한다.

② 제물 훠손은 호 소저의 악한 본성이 아니라 첨들의 계략을 보여준다. 이 사건만으로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오히려 오해가 깊어진다.

③ 제사와 관련된 초월적 존재의 개입이나 비극적 사건 예고는 지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이 사건은 심청의 효심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첨들의 모함으로 인해 호 소저가 억울한 누명을 쓰는 과정이다.

⑤ 제사를 둘러싼 갈등은 인물 간의 오해와 불신을 증폭시킬 뿐,

성찰이나 화해와는 거리가 멀다.

28. ③

⑦은 서술자가 작품에 직접 개입하여 인물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편집자적 논평(서술자적 논평)에 해당한다. 이러한 논평은 특정 인물의 시각이나 내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술자가 작품 밖의 전지적 위치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서술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인물에 초점을 두고'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⑦에서 나교란은 죽은 설 부인의 제사에 대해 언급하며 두쌍성의 효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어지는 호 소저에 대한 참소(⑦)가 더 설득력 있게 들리도록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② ⑦은 나교란이 호 소저가 하지 않은 말을 사실처럼 꾸며 두쌍성에게 전달하는 부분이다. 이를 통해 호 소저가 시어머니를 원망하는 인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려 하고 있다.

④ ⑦은 두쌍성의 질문을 받은 대상인 추운사(호 소저)를 대신하여 제자인 은낭이 나서서 치료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⑤ ⑦에서 서술자는 '괴이히 여겨'라는 표현을 통해, 두쌍성이 상황에 대해 느끼는 의구심, 즉 내면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9. ⑤

<보기>에 따르면, 「청백운」의 남성 주인공이 전통적인 영웅적 권위가 아닌, 구원자인 여성 인물과의 '인격적 소통'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관계를 회복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문에서 두쌍성이 고통을 참는 영웅적 면모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인물인 호 소저의 치료(구원)를 통해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주인공 혼자 영웅적 면모로 위기를 극복하는 관습적 서사로 보는 것은 <보기>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감상이다.

① 나교란의 참언을 듣고 '모골이 송연하였다'는 구절은, 두쌍성이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기보다 사적인 감정에 먼저 휩쓸려 가정의 붕괴를 초래하게 되는 <보기>의 설명과 일치한다.

② 호 소저가 '화타의 남은 재주를 다'한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은, 일방적인 구원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주인공과 대화를 나누며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③ 두쌍성이 추운사(호 소저)의 떨림을 보고 '도사는 심약한 사람입니다'라고 농담을 건네는 것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살피며 소통하려는 모습으로, <보기>에서 설명한 새로운 인간상에 부합한다.

④ 은낭이 추운사(호 소저)의 감정적 동요를 '성품이 지나치게 인자하여'라고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은, 감정에 충실한 '새로운 인간상'이 재구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이다.

[30-34] 26 수완 현대시 '산수유나무의 농사' 연계

30. ⑤

(가)의 화자는 임을 기다리며 자신을 '아침이슬'에 비유하는 등 임과의 만남을 간절히 소망하지만, 시의 중심 내용은 대상과의 완전한 합일 자체보다는 기다림이라는 행위와 그 가치에 맞춰져 있다. (나) 역시 관찰 대상인 '그늘' 자체와의 합일을 추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가)는 부재하는 '님(그대)'에 대한 기다림과 그리움의 정서를,

(다)는 떨어져 사라지는 '낙화'를 보며 느끼는 적막함과 성찰의 정서를 드러내었다.

② (나)는 '산수유나무 그늘'에 대한 관찰을 통해 '농사'라는 새로운 의미를, (다)는 '낙화'에 대한 관찰을 통해 '적막함의 아름다움'과 '위대한 예술감'이라는 의미를 발견하였다.

③ (가)는 '기다리면 님께서 오신다'는 미래 시점의 만남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였고, (나)는 현재 존재하는 '산수유나무 그늘'이 지닌 가치('한 해 농사', '좁쌀 다섯 되')를 중시하였다.

④ (나)는 그늘을 '농사', '좁쌀' 등으로 표현하며 그 생산적 측면을 부각하였고, (다)는 낙화에서 '적막함', '위대한 예술감', '적멸의 경지' 등을 발견하며 미학적 측면을 부각하였다.

31. ①

(가) 시에서 화자는 임이 부재하는 현재 상황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굳건한 자세는 단순한 기다림의 외양을 넘어, 현재의 결핍을 견디며 미래(임과의 만남)를 향해 나아가려는 화자의 내면적 의지와 전망(展望)을 외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가장 적절한 감상이다.

② 새벽별이 어깨를 치는 것은 기다림의 시간 경과나 화자의 외로움을 환기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새벽별에 인격을 부여하여 교감하며 외로움을 달래려는 화자의 소망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화자가 자신을 '아침이슬'에 비유한 것은 기다림의 순수함, 영롱함, 또는 헌신적 자세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덧없고 연약한 처지를 부각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기다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느냐'는 설의적 질문 형식은 기다림이 사랑의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는 것이지, 기다림의 '고통'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시 전체적으로 기다림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⑤ '큰 섬'은 임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지만, 이것이 만남의 '불가능성'이나 화자의 '절망감'을 암시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시는 '기다리면 님께서 오신다'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다.

32. ④

(나)에서 글쓴이는 산수유나무 그늘을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라고 표현하며, 추상적인 그늘을 구체적인 양감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는 <보기>에서 설명한 것처럼 평범한 대상인 '그늘'에서 '새로운 가치'(측정 가능한 결실)를 발견하는 독특한 인식을 보여준다. (다)에서 글쓴이는 처음에는 쓸쓸하게 느꼈던 '낙화'의 '적막함' 속에서 '위대한 예술감'을 발견한다. 이는 <보기>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연 현상인 낙화를 겪으며 글쓴이의 미적 감상이 심화되는 과정을 잘 드러낸다.

오답 풀이

① (나)는 '노란 꽃'이 아닌 '그늘'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현재의 결핍'을 인식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는 '뜰 안'이라는 공간 자체보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낙화' 현상을 통해 감상과 성찰이 이루어진다.

② (나)에서 글쓴이는 '그늘도 노랗다'고 하며 그늘을 꽃과 연결된 긍정적인 대상으로 인식하지,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다)에서 글쓴이가 '엎어진 꽃'을 보고 처음에는 마음이 찔리는 부정적 감상을 느낀 것은 맞지만, 이후 감상이 심화되므로 이것을 부정적인 인식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

③ (나)에서 꽃의 개화를 통해 그늘이 확장되는 것은 만물을 포용한다는 점에서 생명력의 허용 범위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에

서 글쓴이가 낙화를 보고 '모두 침묵이요, 적막이요, 슬픔이다'라고 느끼며, 이것에서 쓸쓸함을 인식하지만, 오히려 적막 속에서 예술감을 발견하며 감상이 깊어지고 있으므로 인식의 확장을 통해 외로움이 심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⑤ (나)는 글쓴이는 불평하는 사람들과 나무를 대비함으로써, 나무의 배려라는 그늘의 가치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에서 글쓴이는 '꽃이 열릴 나뭇가지는 자주 손질을 하였으나'를 통해 나무를 정성을 다해 돌보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글쓴이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꽃이 떨어지는 자리를 돌보지 못한 것이지, 나무를 돌보지 못한 것이 아니다.

### 33. ⑤

(가)의 화자는 이미 임(그대)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기다리는 상태이며, 통통배나 새벽별은 그 기다림 속에서 바라보는 외부 풍경이다. 이는 화자의 내면 상태(그리움)가 외부 세계(통통배, 새벽별)에 투영되어 주목하게 되는 것이지, 외부 현상이 그리움을 새롭게 유발하는 원인이 아니다. 그리움의 근본 원인은 부재하는 '님'이다. 또한 <보기>에 따르면 (가)는 '내면적 행위' 자체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외부 현상 관찰이 내면 정서의 원인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보기>의 관점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① (가)에서 화자가 자신을 순수한 '아침이슬'에 비유하며 기다림을 지속하는 것은, <보기>에서 설명한 것처럼 부재하는 대상을 향한 '내면적 행위'(기다림) 자체에서 헌신적이고 아름다운 가치를 찾으려는 태도로 볼 수 있다.

② (가)에서 화자가 '기다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설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기다림이라는 '내면적 행위'가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나)에서 화자가 산수유나무 그늘을 '한 해 농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보기>에서 설명한 것처럼 '세심한 관찰'을 통해 평범해 보이는 대상(그늘)이 지닌 '숨겨진 생산성'(농사)이라는 가치를 발견하는 모습이다.

④ (나)에서 화자가 눈에 잘 띠는 '꽃'(하늘)과 상대적으로 간과되기 쉬운 '그늘'(땅)을 대비시키는 것은, <보기>에서 설명한 것처럼 '표면적 현상 이면에 있는 숨겨진 의미'에 주목하여 그늘이라는 '대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 34. ①

'연북정'은 화자가 임을 기다리며 자신의 간절한 마음과 기다림의 의미를 되새기는 공간이다. 즉, 화자의 의식이 임에게로 집중되면서 사랑과 기다림에 대한 내면적 사유를 촉발하는 중심 장소이다. ⑥ '낙화의 적막!'은 글쓴이가 떨어진 꽃의 고요함에 주목하여, 그 속에서 '위대한 예술감'과 '천고(千古)'를 느끼고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는 계기가 된다. 즉, 글쓴이의 의식이 낙화의 상태에 집중되면서 미적 감상과 자기 성찰이라는 내면적 사유로 나아가게 하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두 요소 모두 화자/글쓴이의 의식을 집중시키고 내면 성찰이나 사유를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는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② ①는 임의 부재 상황이지만, 슬픔보다는 기다림과 희망의 정서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⑥는 낙화의 소멸을 다루지만, 슬픔을 넘어 '위대한 예술감'이라는 긍정적 사유로 나아간다. 따라서 상실감과 슬픔만을 공통점으로 보기 어렵다.

③ ①는 화자가 머무는 구체적인 공간(정자)이지만, ⑥는 글쓴이가 낙화를 보며 느끼는 상태나 분위기를 나타내는 개념이자 구체적인

시공간적 배경 자체는 아니다.

④ ①는 기다림을 지속하는 공간이지 고난 극복의 매개체는 아니다. ⑥는 미적, 철학적 성찰의 계기이지 현실 고난 극복이나 미래 희망과는 거리가 멀다.

⑤ ①와 ⑥ 모두 현재의 상황(기다림, 낙화 관찰)에 집중하고 있으며, 과거의 즐거웠던 기억을 회상하여 현재와 대비하는 기능은 나타나지 않는다.

### 화법과 작문

#### 35. ②

발표자는 2문단에서 '결구 방식'의 개념을 "못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나무 부재들을 서로 끼워 맞추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화면 1) 보시는 것처럼"이라며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3문단에서 '기단', '기둥', '보'의 개념과 역할을 설명하며 "(화면 2) 이 사진처럼" 자료를 들어 청중의 이해를 돋고 있다.

① 발표는 한옥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상반된 관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③ (화면 1), (화면 2)는 시각 자료(사진, 그림)이며, 수치를 활용한 '통계 자료'는 인용되지 않았다.

④ 1문단에서 청중과 공유하는 '긍정적 경험'("마음이 편안해졌던 경험")을 언급할 뿐,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⑤ 1문단에서 발표 '주제'("한옥의 구조적 특징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는 밝혔으나, "첫째, 둘째"와 같은 구체적인 '발표 순서'를 안내하지는 않았다. "까요?"라고 말하며, 발표 내용과 관련된 활동을 청중에게 권유하고 있다.

#### 36. ①

'처음' 단계의 계획은 "청중의 경험과 관련된 질문 던지기"이다. 실제 발표 1문단에서도 "마음이 편안해졌던 경험, 있으신가요?"라며 '경험'을 묻고 있다. 하지만 ①번 선지는 발표자가 '정서적 기능에 대해 질문'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경험' 유무를 물은 것을 '기능'에 대해 질문했다고 분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중간1'(기본 구조 설명) 계획에 따라, 2문단에서 (화면 1)을 활용해 '결구 방식'과 '나무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③ '중간2'의 계획은 '자연 재료의 종류 나열'이었으나, 실제 발표 3문단에서는 '기단', '기둥', '보'의 '구조'를 (화면 2)와 함께 설명한다. 따라서 '기준 계획을 바꿔' '구조'를 설명하고 '시각화 자료'를 제공했다는 분석은 적절하다.

④ '중간3'(지붕 특징 설명) 계획에 따라, 4문단에서 처마의 기능을 '여름', '겨울'의 '계절'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⑤ '마무리'(활동 제안) 계획에 따라, 마지막 문단에서 "고궁이나 한옥 마을을 방문"하여 "직접 살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라고 활동을 제안(권유)하고 있다.

#### 37. ⑤

발표자가 마지막에 제안한 방식은 '한옥을 방문하여 구조를 직접 살펴보는 것'이다. <보기>에서 학생 3은 "다음에 한옥을 찾아가서 기단을 유심

히 봐야겠어."라고 말하여 제안을 수행하려는 태도를 보이지만, 학생 2는 처마의 기능에 감탄할 뿐 이러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학생 2와 학생 3 모두'가 제안을 수행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 ① 학생 1은 '결구 방식'에 대해 "처음 알았어.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라고 말하며 '새롭게 알게 된 정보'에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처마의 기능을 "에어컨이나 히터"라는 '현대의 냉난방 기술'과 '연결 지어' 이해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기단에 대해 "그냥... 받침대인 줄 알았는데"라며 '기존의 잘못된 인식'을 드러내고, 발표를 통해 이를 '수정'하고 있다. 또한 "다음에... 유심히 봐야겠어"라며 "추후 활동에 대한 다짐"도 드러낸다.
- ④ 학생 1은 '결구 방식', 학생 3은 '기단'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모두 '특정 구조의 기능'에 주목하여 내용을 이해한 것이다.

### 38. ①

'학생회장'은 첫 발언에서 "오늘 안건은 ~ 활용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라며 토의 안건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리해 보자면, 복지부장님은 ~, 기획부장님은 ~ 제안해 주셨네요."라며 참여자들의 의견을 요약·정리하고 있으며, "의견을 모아 ~ 건의문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초고를 작성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토의의 목적과 향후 계획을 밝히며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② '복지부장'은 '기획부장'의 '자율 운영 제도' 제안에 "좋은데요."라고 동의한 후, "학생들이 잘 참여할까요?"라며 우려를 표하고 '참여 유도 방안'을 보완 의견으로 제시했을 뿐, 논리적 근거를 들어 반박하고 있지 않다.

③ '기획부장'은 '자율 운영 제도', '근거 자료 필요성' 등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를 '단기적 해결책'과 '장기적 해결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지는 않았다.

④ '학생회장'과 '기획부장'은 모두 "공간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해 논의하며 "좋은 생각입니다."라고 동의하는 등, 공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상반된 입장'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복지부장'과 '기획부장'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공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학교 측의 입장은 대변하거나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39. ⑤

(가)에서 '학생회장'은 현 공간의 문제점으로 '대부분 통로처럼 이용'되는 점과 '비품을 쌓아두는 장소로 변질'된 점, 두 가지를 언급했다. 하지만 (다)의 1문단에서는 "본래의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문제"라고만 포괄적으로 언급할 뿐, '통로처럼 이용되는' 문제점이나 '비품을 쌓아두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의 1문단에 '통로처럼 이용되는' 문제점이 제시되었다는 선지의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① (가)에서 '복지부장'이 "가벽을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한 의견은 (다)의 2문단에서 '가벽'을 설치해달라는 의견으로 반영되었다.
- ② (가)에서 '기획부장'이 제안한 "자율 운영 제도"는 (다)의 3문단에서 "학생들이 주도하는 자율적 공간 운영 제도"로 구체화되어 반영되었다.
- ③ (가)에서 '복지부장'이 보완 의견으로 제안한 "관리 우수 학급에 소정의 혜택을 주는 방안"은 (다)의 4문단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제도"의 구체적인 예시로 반영되었다.
- ④ (가)에서 '기획부장'이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의견은, (다)의 2문단에서 (나)의 [자료 1]인 "설문 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반영되었다.

### 40. ②

(다)의 2문단은 물리적 환경 조성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가)의 토의에서 '복지부장'은 '푹신한 소파'와 '가벽(파티션)' 설치를 제안했다. [자료 1]의 Q2(불만족 이유)에서는 '휴식 및 편의 시설 부족(175명)'과 '학습/휴식 등 공간 미분리(90명)'가 높은 응답을 보였다. 따라서 (다)의 2문단에서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휴식 및 편의 시설 부족'을 가장 큰 불만 사항으로 꼽았습니다."라고 언급하며 '빈백 소파'(편의 시설)와 '파티션'(공간 분리) 설치를 요청한 것은, [자료 1]의 Q2 응답 결과를 적절히 근거로 활용한 것이다.

① [자료 1]의 Q1(만족도)은 '매우 불만족(65%)', '불만족(20%)'을 합쳐 85%의 학생이 불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다)의 1문단(배경)에서는 이 자료를 구체적인 수치로 인용하지 않았다.

③ [자료 1]의 Q2('공간 관리 미흡') 응답 결과는 (다)의 3문단('자율 운영 제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다)의 3문단에서는 이 자료를 인용하지 않았다.

④ (다)의 3문단은 [자료 2]의 전문가 의견(자율, 주인의식)과 내용은 유사하나,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⑤ [자료 2]의 전문가 의견은 '자율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다)의 4문단에 제시된 '소정의 혜택'(참여 유도 방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

### 41. ③

③번 선지는 1문단의 '학생 자치 공간'을 5문단과 똑같이 '쉼표 마루'로 수정하고 5문단에서 '쉼표 마루'의 명칭의 의미를 밝히는 방안을 의미한다. 하지만 <보기>의 '학생 1'은 '쉼표 마루'라는 명칭이 5문단에 갑자기 등장하므로, '글의 앞부분'에서 명칭과 그 의미를 밝혀 통일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따라서 5문단에서 '쉼표 마루'의 명칭의 의미를 밝히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은 수정·보완 방안이다.

① '학생 1'의 반응(명칭과 의미를 앞부분에 밝히자)을 충실히 반영하여, 1문단에 '쉼표 마루'라는 명칭과 '휴식과 소통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추가하는 방안이므로 적절하다.

② '학생 2'의 반응(3문단에 [자료 2]를 추가해 설득력을 높이자)을 반영하여, 3문단의 '주인의식' 관련 내용 뒤에 [자료 2]의 전문가 의견을 추가하는 방안이므로 적절하다.

④ '학생 2'의 반응을 반영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3문단의 주장(자율 운영 제도 도입)을 제시하기 전에 [자료 2]의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제시하는 방안이므로 적절하다.

⑤ '학생 1'의 요구(1문단에 명칭/의미 추가)와 '학생 2'의 요구(3문단에 [자료 2] 추가)를 모두 반영하여 수정·보완하는 방안이므로 적절하다.

### 42. ②

<조건> 1, 2, 3을 모두 충족한다.

(기대 효과: 1) "이를 통해 학생 복지가 크게 증진될 것입니다."

(비유적 표현: 2) "'쉼표 마루'가 학생들의 지친 마음에 오아시스가 되어 줄 수 있도록"

(목적 및 검토 요청: 3) "저희가 제안한 공간 개선 및 운영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의 목적이 '공간 개선 및 운영'임을 명시)

① (기대 효과: O), (검토 요청: O) / (비유적 표현: X) - 2번 조건(비유)

이 누락되었다.

③ (기대 효과: O), (비유적 표현: X), (검토 요청: O) 비유적 표현이 포함되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 '활력소'라는 어휘는 비유적 표현이 아니다.

④ (기대 효과: O), (비유적 표현: O - 등대) / (검토 요청: X) - 3번 조건(검토 요청)이 누락되었다.

⑤ (기대 효과: O), (검토 요청: O) / (비유적 표현: X) - 2번 조건(비유)이 누락되었다.

#### 43. ⑤

'학생의 생각'에서 현황과 문제점으로 지적한 '쓰레기 적치 장소로 변질'된 내용은 '학생의 초고' 1문단("일부는 쓰레기나 방치된 비품의 적치 장소로 변질되고 있습니다.")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2문단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와 같이, 1문단에서 제시한 현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과 '문제점'을 서술한 부분이므로, 2문단에 반영되었다는 ⑤번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학생의 생각'에서 '틈새 공간' 문제를 '주제'로 삼고, '중앙 현관 옆 공간이나 연결 통로'를 '현황'으로 지적하겠다는 내용은 초고 1문단에 잘 반영되어 있다.

② '학생의 생각'에서 '미관을 해치고, 학생들의 휴식 공간도 부족하게 만든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는 내용은 초고 2문단에 반영되어 있다.

③ '학생의 생각'에서 "소규모 휴게실"이나 '미니 갤러리'를 제안하겠다는 내용은 초고 3문단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반영되어 있다.

④ '학생의 생각'에서 "틈새 공간 디자인 공모전"을 제안하겠다는 내용은 초고 4문단에서 학생 주도의 방식('아이디어를 모을 것을 제안')으로 반영되어 있다.

#### 44. ①

'선생님의 조언'은 1) 문제 상황, 2) 핵심 해결 방안, 3) 비유적 표현을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①번 제목은 "자는 '틈새 공간'"에서 '방치된 틈새 공간'이라는 문제 상황과 비유적 표현을 드러낸다. 또한 "학생들의 쉼터와 문화 공간으로 깨워야"라는 표현을 통해 3문단의 핵심 해결 방안인 '소규모 휴게실'(쉼터)과 '미니 갤러리'(문화 공간)를 모두 포괄하여 핵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② '문제 상황'은 드러나지만, '핵심 해결 방안'이 누락되었다.

③ 글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설명할 뿐,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한다.

④ '디자인 공모전'은 3문단의 핵심 해결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방식'의 제안(4문단)이므로, 글 전체의 '핵심 해결 방안'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문제 상황'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백서'는 보고서의 형식을 의미하므로 교지 기고 글의 성격과 맞지 않다.

#### 45. ③

'학생의 초고' 3문단에서는 '틈새 공간'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으로 '소규모 휴게실'과 '미니 갤러리'를 제안하고 있다. <보기>의 [자료 1]-ㄴ(필요한 기능)에서 학생들은 '휴식 공간'(150명)과 '전시 공간'(70명)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고 3문단에 [자료 1]-ㄴ의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여, 3문단의 제안(휴게실, 갤러리)이 학생들의 실제 요구(수요)에 부합함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가장 적절한 자료 활용 방안이다.

① 1문단에는 이미 '틈새 공간'이 방치된 현황으로 "조명도 어둡고"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자료 1]-ㄱ은 "너무 어두워서"가 방치되는 '이유'임을 보여주는 설문 결과인데, 선지에서는 이를 '원인을 추가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미 언급된 내용의 근거를 보강하는 것이므로 '원인을 추가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2문단은 '틈새 공간' 방치로 인한 '문제점'과 '시급성'을 다루는 문단이다. [자료 2]의 '풀딩 도어'는 '해결 방안'의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하므로, 2문단의 내용과는 흐름이 맞지 않으며 문단의 통일성을 해친다.

④ [자료 2]의 사례에서는 풀딩 도어를 이용하여 동시에 휴식 공간과 세미나실로 사용하는, 공간 활용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풀딩 도어를 사용하여 중앙 현관에 설치하고, 다른 공간에 세미나실을 만드는 것은 [자료 2]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도 못할뿐더러, 휴게 공간과 전시 공간을 확보하자는 기존의 초고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4문단은 '공모전'이라는 '방식'을 제안하는 문단이다. [자료 1]-ㄴ('스터디 공간')이나 자료 2 등 '학업' 관련 내용을 4문단에 추가하는 것은 문단의 통일성을 해치며, [자료 1]의 ㄴ에서 스터디 공간에 대한 요구가 가장 적으로 학업과 관련된 내용의 근거로 쓰기에도 적절하지 않다.

## 언어와 매체

## 35. ⑤

3문단에서 -(으)ㅁ의 두 가지 지위는 '형태가 동일하나 기능이 다른 동음이의 형태소' 관계라고 설명한다. 즉, '명사 파생 접미사' -(으)ㅁ과 '명사형 전성 어미' -(으)ㅁ은 서로 다른 형태소이다. 전자는 1문단에 따라 어휘적 의미를 더하는 파생 접사이고, 후자는 2문단, 4문단에 따라 문법적 의미를 더하는 굴절 어미이다. 하나의 형태소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는 것이 아니라, 형태만 같은 두 개의 다른 형태소가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형태소가 문법적 의미와 어휘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기 때문'이라는 진술은 '동음이의 형태소'라는 지문의 설명과 모순된다.

① 2문단에서 '굴절 어미'는 '높은 생산성'을 보인다고 하였고, 4문단에서 '명사형 전성 어미'는 '굴절 어미의 일종'이라고 하였다. 반면 1문단에서 '파생 접사'는 '결합에 제약'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명사형 전성 어미'가 '명사 파생 접미사'보다 생산성이 높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1문단에서 파생 접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꿀 수 있다고 하였다. 3문단에서 -(으)ㅁ이 '명사 파생 접미사'로 기능할 때, 이는 용언(동사/형용사) 어근에 붙어 '명사'를 만들므로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한다.

③ 4문단에서 '명사형 전성 어미'가 결합한 것은 '서술성을 유지'한다고 하였고, 5문단에서 '서술성을 유지하는' 구성은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용언의 명사형이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 것은 서술성이 유지되기 때문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1문단의 예시에 따르면, '늦-'은 명사 '밤'에 결합하여 명사 '늦밤'이 되었으므로 품사 변화가 없다. '-개'는 동사 '덮-'에 결합하여 명사 '덮개'가 되었으므로 품사를 바꾸었다. 둘 다 파생 접사이며, '늦-'이 '-개'와 달리 품사를 바꾸지 못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36. ③

5문단에 따르면 '파생 명사'는 어휘화되어 '복수 접미사 -들'과 결합할 수 있고 '사전에 등재'될 수 있다. 그의 '그림', 그의 '얼음', 그의 '믿음'은 각각 '그림들', '얼음들', '믿음들'처럼 '-들'과 결합이 자연스러운 파생 명사이다. 그리고 그의 '지켰음'은 용언의 활용형이므로 '-들'과 결합이 어색하다. 하지만 그의 "그림을 빨리 그림으로"라는 문장에는 '그림'이라는 어휘가 두 번 사용되었다. 이 중 목적어로 쓰인 '그림을'의 '그림'은 그과 마찬가지로 5문단의 기준에 따라 파생 명사에 해당하며, '그림들'처럼 '-들'과 결합이 가능하다. 따라서 그의 '그림으로'는 그의 '지켰음'과 결합할 수 있다고 서술한 ③번 선지는, 그의 예문에도 '-들'과 결합할 수 있는 어휘('그림')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① 5문단에 따르면 '파생 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 그의 '그림'은 '아름다운'의 수식을, 그의 '믿음'은 '깊은'의 수식을 받으므로, 이들은 파생 명사이며 이때 결합한 -(으)ㅁ은 '파생 접미사'로 볼 수 있다.

② 4문단에 따르면 '용언의 명사형'은 '서술성'을 유지하여 목적어 등을 필요로 할 수 있다. 그의 '그림으로'는 '그림을'을, 그의 '지켰음'은 '약속을'을 필요로 하므로 서술성을 유지한다. 이때 결합한 -(으)ㅁ은 '명사형 전성 어미', 즉 '굴절 어미'로 볼 수 있다.

④ 5문단에 따르면 수식어의 종류로 문법적 지위를 판별할 수 있다. 그의 '그림으로'는 '빨리'라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고, 그의 '믿음'은 '깊은'이라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 이는 그의 '용언의 명사형'이고 그의 '파생 명사'임을 보여주므로, 둘의 문법적 지위가 다름을 뜻한다.

⑤ 그의 '그림'과 그의 '그림으로'의 '그림'은 모두 '그리-'에 '-ㅁ'이 결합한 것이 맞다. 하지만 그은 5문단에 따라 '파생 명사'이므로 서술성을

'상실'했고, 그은 4문단과 5문단에 따라 '용언의 명사형'이므로 서술성을 '유지'한다. 따라서 '서술성 유무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37. ②

'을'은 활용을 하지 않고 앞말(체언 '책')에 붙어 쓰이는 조사이다. 하지만 '을'의 기능은 '다른 말의 의미를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앞말이 문장 안에서 서술어의 목적어임을 나타내는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는 '목적격 조사'의 기능이다.) '다른 말의 의미를 더해주는 말'은 '은/는', '만', '도'와 같은 '보조사'에 대한 설명이므로, '을'의 기능을 설명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① '새'는 활용하지 않으며 뒤에 오는 체언 '책'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관형사의 특징을 바르게 설명하였다.

③ '읽고'는 동사 '읽다'의 어간 '읽-'에 어미 '-고'가 결합한 활용형이며, '읽다'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동사의 특징을 바르게 설명하였다.

④ '슬픈'은 형용사 '슬프다'의 어간 '슬프-'에 어미 '-ㄴ'이 결합한 활용형이다. '슬프다'는 형태가 변할 수 있고(활용하고),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형용사의 특징을 바르게 설명하였다.

⑤ '감정'은 사람의 느낌을 나타내는 이름이며,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활용하지 않는다). 이는 명사의 특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이다.

## 38. ⑤

⑤의 '고양이에게'는 현대 국어 용례이다. 1문단에 따르면 현대 국어는 부사어의 대상이 유정물(사람, 동물)일 경우 '에게'를 사용한다. '고양이'는 동물이므로 유정물에 해당하여 '에게'를 쓴 것은 1문단의 설명에 부합한다. 하지만 ⑤번 선지는 그 이유를 1문단의 예시인 '아들에'(사람)와 대비시키며, '사람이 아닌 동물이므로' '에게'를 썼다고 서술한다. 이는 1문단이 '사람'과 '동물'을 '유정물'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어 '에게'의 사용 조건으로 설명한 것과 모순된다. ⑤의 '친구에게'(사람)와 ⑤의 '고양이에게'(동물)에서 보듯이, 현대 국어는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지 않고 둘 다 유정물로 취급하여 '에게'를 쓴다. 따라서 '사람이 아닌 동물이므로'라는 이유는 적절하지 않다.

① ⑤의 '애'는 무정물 '虚空(허공)'에, ⑤의 '에'는 무정물 '우체통'에 결합하였다. 둘 다 부사어의 대상이 무정물임을 나타낸다.

② ⑤의 '씩'은 '아비(아버지)'라는 높임의 대상에 결합하였다. 1문단에서 높임의 대상에는 '씩'을 사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⑤의 '아들에'는 유정물('아들')에 '에'가 결합한 중세 국어 용례이다. ⑤의 '친구에게'는 유정물('친구')에 '에게'가 결합한 현대 국어 용례이다. 둘 다 대상(수혜자)을 나타내는 기능은 같지만, 유정물에 결합한 조사의 형태가 다름을 보여준다.

④ <보기 1>은 유정물과 무정물 관련 없이 에 또는 애를 사용하는 중세 국어의 용법이다. ⑤은 유정물 '친구'에 '에게', 무정물 '우체통'에 '에'를 사용했으므로 적절하다.

## 39. ②

②의 관형절 [그가 정직하다는]은 뒤의 추상 명사 '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동격 관형절이다. 동격 관형절은 안긴문장('그가 정직하다') 자체가 주어, 서술어 등을 갖춘 완전한 문장 구조를 이룬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①, ③, ④, ⑤는 모두 선행하는 체언(수식받는 명사)이 안긴문장 속에서 특정 문장 성분을 겸하는 관계 관형절이다. 관계 관형절은 안긴문장 내에 선행하는 체언에 해당하는 성분이 생략된 불완전한 문장 구조를 가진다.

- ① '[내가 어제 읽은] 책'은 '내가 어제 (책을) 읽다'에서 목적어가 생략되었다.
- ③ '[우리가 내일 모두 함께 갈] 곳'은 '우리가 내일 모두 함께 (곳에) 가다'에서 부사어가 생략되었다. ('모두 함께'는 부사어이다.)
- ④ '[마음씨가 착한] 사람'은 '(사람이) 마음씨가 착하다'에서 주어가 생략되었다.
- ⑤ '[내가 어릴 적 매일같이 듣던] 곡'은 '내가 어릴 적 매일같이 (곡을) 듣다'에서 목적어가 생략되었다. ('매일같이'는 부사어이다.)

## 40. ②

(가)의 게시물 마지막 부분에는 '#상상고등학교', '#방송부', '#BBS', '#신입부원모집' 등 여러 개의 해시태그가 사용되었다. 소셜 미디어에서 해시태그는 특정 키워드와 관련된 게시물을 쉽게 검색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방송부나 신입 부원 모집에 관심 있는 사용자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므로, 이 설명은 (가)의 매체 활용 양상으로 가장 적절하다.

① (가)는 각 모집 분야(아나운서부, PD부, 엔지니어부)를 텍스트로 설명하고 있을 뿐, 활동 내용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영상과 같은 시각 자료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게시물 상단의 이미지는 작년 축제 영상의 한 장면일 뿐 각 부서 활동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③ (가)의 Q&A 섹션 아래에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라고 안내하고 있으나, 이는 댓글로 문의를 받는다는 의미이지 실시간으로 즉각적인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Q&A 섹션의 답변들도 미리 준비된 내용이다.

④ (가)에서는 지원서 양식을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라고 안내하고 있을 뿐, 인스타그램 게시물 자체에 파일이 직접 첨부되어 있지는 않다. 사용자는 별도로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⑤ (가)의 Q&A 섹션에서 3학년 지원 불가 답변 뒤에 비언어적 표현인 아쉬움을 나타내는 이모티콘(😊)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PD부에서는 고3 모집이 불가능함을 알리는 것이다. 마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이 아니다.

## 41. ③

⑦의 '높았대'는 형용사 어간 '높-'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내용을 옮겨 말할 때 쓰는 종결 어미 '-대'('-다고 해'가 줄어든 말)가 결합한 형태이다. 이는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다른 출처로부터 얻은 정보를 전달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종결 어미 '-대'를 사용하여 직접 경험했던 내용을 전달한다고 설명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직접 경험한 과거 사실을 회상하며 말할 때는 주로 '-더라'와 같은 어미를 사용한다.

① ⑦에서 관형절 '고민하는'은 '분들'을 수식하여 방송이 대상으로 하는 청자를 '옷장 앞에서 항상 고민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한다. 이를 통해 해당 고민을 가진 시청자들의 공감을 유도하고 방송 내용과의 관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② ⑦의 '신중하게'는 형용사 어간 '신중하-' 뒤에 부사 기능을 하도록 하는 어미인 부사형 어미 '-게'가 결합하여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부사어는 뒤따르는 서술어 '선택해 주세요'를 수식하여 선택이라는 행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방식)를 구체화하는 기능을 한다.

④ ⑨의 '완전'은 뒤따르는 서술어 '멋있던데'의 의미를 강조하는 부사이다. 이를 통해 엔지니어부 활동 모습에 대한 화자(김민준)의 매우 긍정적인 인상(감탄)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⑨의 '같은 거'는 관형사 '같은'이 의존 명사 '거'('것'의 구어체)를 수식하는 구조이다. 여기서 '같은'은 '기술'과 유사한 종류의 것, 즉 전문적

인 지식이나 능력을 예둘러 표현하는 비유적인 기능을 하여, 직접적으로 단정하기보다 부드럽게 질문하는 효과를 준다.

## 42. ④

<보기>의 선생님은 구체적인 정보((가) 모집 공고, (나) 친구들과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배우고 싶은 점을 연결하고,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작성하라고 조언했다. ④는 (나)의 대화에서 '유진'이 전달한 정보("기계 잘 몰라도 선배들이 다 알려준다. 열정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를 바탕으로 엔지니어부에 대한 자신의 망설임(솔직한 생각)과 지원 계기(배우고 싶은 점, 용기)를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또한 (가)에 제시된 엔지니어부의 목표("최상의 방송 퀄리티")를 언급하며 자신의 열정("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을 보여주고 있어, 선생님의 조언에 가장 부합하는 지원서 내용이다.

① (나)의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부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점은 좋으나, "최첨단 방송 장비" 등 (가)나 (나)에 근거하지 않은 막연한 기대를 서술하고 있으며, 배우고 싶은 점보다는 활동에 대한 인상 위주로 서술되어 있다.

② (가)의 엔지니어부 소개 문구를 활용했고 자신의 강점(꼼꼼함, 책임감)을 언급했지만, 배우고 싶은 점이나 방송부 활동에 대한 진솔한 관심보다는 일반적인 자기소개에 가깝다.

③ 자신의 기존 기술과 역량을 강조하고 있지만, <보기>에서 강조한 것처럼 (가)나 (나)의 정보를 바탕으로 배우고 싶은 점이나 방송부 활동 자체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⑤ 방송부 활동에 대한 일반적이고 막연한 기대(다양한 경험, 시스템 이해)만 드러낼 뿐, (가)나 (나)의 구체적인 정보와 연결된 지원 동기나 배우고 싶은 점, 진솔한 고민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 43. ⑤

화면 2는 '커피 속 카페인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성장판을 닫히게 만든다는 속설!'이라는 자막과 함께, 카페인이 칼슘을 밀어내는 듯한 그래픽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과학적 실험 결과나 객관적인 데이터를 시각화한 것이 아니라, 널리 퍼진 '속설'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화면 2가 카페인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진술은 명백히 틀렸으며, 마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함정이다.

① 화면 1은 학생이 커피를 마시려다 제지당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짧게 보여주고, "커피 마시면 정말 키 안 클까?"라는 질문 형식의 자막을 통해 시청자의 흥미와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이는 쇼츠 영상 도입부의 전형적인 주의 집중 방식이다.

② 화면 2는 '칼슘', '카페인'이라는 핵심 개념을 아이콘 또는 글자로 표현하고, 카페인이 칼슘을 밀어내는 듯한 단순화된 그래픽과 함께 속설의 내용을 자막으로 요약 제시하여 짧은 시간 안에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③ 화면 3은 "커피 때문에 키 안 컸다는 친구들 꼭 있음!"이라는 경험담 형식의 자막과 함께 키가 작은 여러 학생의 모습을 빠르게 교차 편집하여 보여준다. 이는 개인적인 경험에 호소하여 내용에 대한 정서적 공감 대를 형성하고 주장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설득력'은 주관적일 수 있으나, 제작 의도는 설득력 제고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④ 화면 4는 커피 아이콘 위에 붉은색 X 표시(금지 기호)를 크게 보여주고, "성장기 청소년, 커피는 무조건 피해라!"라는 단정적인 자막을 통해 영상 제작자의 최종적인 주장(커피 섭취 반대)을 명확하고 강렬하게 전달하고 있다.

#### 44. ②

(나)는 (가)의 쇼츠 영상 등에서 펴지고 있는 '커피를 마시면 키가 크지 않는다'는 특정 속설을 반박하는 글이다. 글의 도입부에서 해당 속설을 언급한 뒤, "전문가들은 이것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과장된 공포'라고 지적한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한다. 이어서 카페인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장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칼슘 섭취량과 균형 잡힌 식단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2022년 ○○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논문"이라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커피보다 나쁜 식습관을 경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며 속설이 근거가 희박함을 재확인한다. 이처럼 (나)는 특정 속설을 반박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과 연구 결과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활용하여 논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②가 가장 적절하다.

① (나)는 커피와 키 성장의 관계라는 특정 속설에 대해 반박하는 글이며, 문제 현상의 원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거나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

③ (나)는 속설에 대한 현재 시점의 반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식 변화 과정을 보여주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④ (나)는 커피와 키 성장이라는 하나의 중심 화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유사한 사례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⑤ (나)는 문제 상황(속설)을 해결(반박)하기 위한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하는 글이 아니라, 속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논증적인 글이다.

#### 45. ②

(가) 유튜브 '쇼츠' 영상은 "커피 때문에 키 안 컸다는 친구들 꼭 있음!"과 같은 개인적인 경험담이나 공포심("성장판을 닫히게 만든다는 속설!", "무조건 피해라!")에 호소하는 등 감성적인 방식으로 주장을 전달하고 있다. 반면, (나) 학교 신문 기사는 "전문가들은 ~ 지적한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따르면", "○○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등 객관적인 근거(전문가 의견, 연구 결과)를 제시하여 커피와 키 성장의 관계에 대한 속설을 반박하고, 독자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②는 (가)와 (나)의 내용 전달 방식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① (가)는 비유적 표현보다는 직접적이고 단정적인 표현("무조건 피해라!")과 시각적 이미지를 주로 사용한다. (나)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지만 통계 자료(수치화된 그래프나 표)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③ (가)는 속설을 전달할 뿐, 시청자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는 속설을 반박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상반된 관점을 균형 있게 제시하여 독자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구조는 아니다.

④ (가)는 전문가 견해를 인용하지 않았고, (나)는 실제 사례보다는 전문가 의견과 연구 결과를 주로 제시하고 있다.

⑤ (가)는 개인적인 경험담("친구들 꼭 있음!")을 근거로 활용하지만, (나)는 객관적인 근거를 주요 논거로 사용하며 개인적인 경험담은 제시하지 않는다.